

<서 평>

남아프리카 사회 문화 연구의 쟁점들

이 문 회(예일대학교 인류학과)

이 글은 아프리카에 관해 영어로 출판된 주요 저작들 몇 권을 소개하고, 주로 영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는 글이다. 물론 이 글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지금까지 쌓여진 연구 업적들 및 진행 중인 연구들을 포괄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아프리카인들의 삶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 발이라도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아프리카의 정체성

Annie E. Coombes, *Reinventing Africa: Museums, Material Culture and Popular Imagination in Late Victorian and Edwardia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97.

V.Y. Mudimbe, *The Invention of Africa: Gnosis, Philosophy, and the Order of Knowledg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콥즈의 책은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인류학이라는 분과 학문과 박람회와 박물관이라는 문화 사업이 어떻게 대중에게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고정시켰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개최된 전시회와 박람회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학계 및 언론에서의 논쟁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콥즈는 아프리카의 물건들이 유럽에서 일차적으로 골동품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물건이든 ‘미적’ 기준으로만 재평가되었고, 엄연히 동시대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물에 비견되었으며, 이는 은연 중에 아프리카 침략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잠재우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97년 영국의 베냉 침공 이후 약탈되어 유럽으로 오게 된 청동 조각들은 대대적으로 전시되고 논의되었는데, 이로 인해 영국 대중들은 명분 없는 비도덕적 침략 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아프리카의 ‘미개한’ 문화 수준을 증언하는 이 유물들에 열띤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 베냉 청동 조각들의 주조 기술이 과거 유럽인들의 기술에 비해 열등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더 나아가 간혹 보이는 정교함은 베냉 문화가 일찍이 유럽 문화의 영향 하에 있었거나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베냉 문화가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영국의 지배는 베냉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것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몇몇 인류학자들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폈으나, 대중적인 공공 영역에서 전시와 박람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증명되는 인류학 이론들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이론들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콥즈는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박물관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사회진화론을 교육시켰으며, 이로 인해 영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1900년

대 초 이후로는 아프리카가 미개하고 퇴화된 이미지에 더해, 보살피고 가르치면 개화할 수 있는, 문명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덧입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쿵즈가 19세기 유럽 대중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의 고정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무덤베는 이렇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아프리카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에게 재각인되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유럽적 사고틀 안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 무덤베의 저작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작 “오리엔탈리즘”의 논의를 아프리카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덤베에 의하면 서구 학문의 지식체계는 뿌리 깊이 자문화 중심적이다. 이 체계 안에서는 오직 유럽의 지식만이 보편적 지식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기능주의적 사고에서 “기능”은 정상적 기능과 병리적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정의되고, 이 “정상적인 것”은 “유럽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럽 외의 세계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비정상이고 병들었으며 무질서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절대적 타자로서의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분과 학문으로서 인류학이 생겨나고 그것이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팽창에 “과학적” 근거가 되어주면서 아프리카는 대상화를 넘어 물신화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식민지에서, 혹은 그 이후에 유럽식 교육을 받고 자란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비정상, 타자로 구분하는 지식의 범주들을 이용하여 제국에 대항할 수 있을까? “노예 무역과 식민주의라는 트라우마를 포함한 서구 학문의 전통은 이제 아프리카가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무덤베는 아프리카인들의 학문과 예술을 재평가하고 긍지를 되살리려 했던 1930년대의 네그리튀드 *negritude* 사상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세대 지식인들의 저작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이들이 여전히 동일자와 타자의 구분으로 지식을 성립시키는 유럽의 사고틀 안에 갇혀 있다고 주장한다. 네그리튀드 사상가들의 주장은 19세기 유럽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뒤집은 것이고, 혼툰지 등의 신세대 지식인들 역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가능한 것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틀 안에서 진정한 아프리카 철학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무덤베는 주장한다.

쿵즈와 무덤베의 주장은 일각에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아프리카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서 (이들 자신조차)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이다.

2. 여성과 인권

Ellen Gruenbaum, *The Female Circumcision Controversy: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아프리카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종종 아프리카인들의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전통적 관행들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기 쉽기 때문에¹⁾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 사회 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문화적 실천들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관념들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루엔바움의 민족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루엔바움은 여성

1) 물론 군사독재나 인종청소, 난민, 인신매매 등 아프리카의 독립 이후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논외로 친다. 우연찮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주권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할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성행하던 수단 의 한 마을에서 수행한 5년의 현지 조사 경험을 토대로, 이제껏 아프리카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 할례 관행에 대한 다각적 해석을 시도한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음핵 일부를 제거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여성 성기의 내음부 대부분을 제거하고 소변을 위한 최소한의 틈을 제외한 외음부 전체를 봉합하는 극단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아프리카의 여성 할례 의식이 서구에 알려진 이래로, 여성 할례는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아프리카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악습으로 여겨졌다. 특히나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이 행해지는 탓에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여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악습으로 규정짓고 여성 할례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루엔바움의 민족지는 수단에서 행해지는 여성 할례 의식이, 단지 무지막지한 야만이나 냉혹한 가부장적 억압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미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부여하는 문화적 실천임을 드러낸다. 그루엔바움은 이를 위해 수단 사회 내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가족제도, 생계 체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규정되고 동시에 사회 전반에 효과를 발휘하는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여성 할례 의식을 통해 미적이고 도덕적인 형상으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는지 추적한다. 또한 서구 여성학자들의 성급한 비판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지 여성운동가들의 주장이 실제 여성 할례를 받아들이는 현지 여성들 자신의 선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루엔바움은 서구

여성학자들의 그러한 비판이 오히려 성 관계에 있어서 오르가즘에만 너무 집착하는 편협한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러면서도 서구에서 성행하는 가슴 성형이나 다른 성형술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서구 여성학자들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일침을 가하면서 그루엔바움은 지역에서 여성 할례를 폐지하려는 운동가들과 여러 인권단체들의 논리들도 자세히 소개하며, 이러한 운동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더 세밀하고도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여성 할례 관행은 사회가 차츰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삶이 비하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일지언정 그 내용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근대적 이성과 미신

Adam Ashforth, *Witchcraft, violence, and democracy in South Af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애쉬포스의 최근 저작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편적 이성이라는 근대 사상들의 전제와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웨토 지역에서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남아공 흑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마녀공포증²⁾에 대해 풍부하게 기술한다. 남아공의 흑인들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연인이 떠나가는 등의 가벼운 불운에서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고,

2) 여기서 ‘마녀’는 영어로 witch 혹은 witchcraft이지만, 남아공에서 witch는 특별히 여성만을 지칭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는 등의 심각한 재앙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시기하는 어떤 이가 주술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특히 각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대도시 주변부에서는 이것이 살인이나 방화의 정당한 이유가 될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애쉬포스는 설명한다. 이전에 아프리카의 마법과 주술 신앙을 다른 민족지들이 이러한 믿음을 은유나 우회적 설명, 혹은 전략적 실천으로만 설명했었다면, 애쉬포스는 소웨토인들의 마법에 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법과 주술이 그들에게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누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가족이나 친구가 마녀로 몰려 폭행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음을 당해도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면 현 ANC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그는 주장하고 있다.

애쉬포스는 또한 1990년대 이후 마법공포증이 부쩍 심해진 배경에 대해, 민주화 투쟁 기간 동안의 연대가 투쟁 종식 이후 약화되고,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렇지 못한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지는 한편, 에이즈의 성행으로 삶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들을 지적한다. 즉 이제 민주화가 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도 철폐되었으며, 자신들도 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삶은 오히려 이전만 못하게 된 것을 납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미신적 사고를 도입하는, 이성의 결핍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이미 근대식 국민 교육이 확대되고 다른 모든 제도와 담론들이 최신의 논리로 무장한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자칫 인

종주의적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자신들의 희망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타운십의 삶을 치밀하게 재현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분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애쉬포스의 논의는 그가 묘사하는,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주변부의 삶과 닮아 있다.

4. 개발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James Ferguson,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유럽 열강이 ‘계몽’을 명분 삼아 아프리카에 침입했다면, 독립 이후에는 ‘개발’이라는 명분이 다시 한 번 아프리카 사회를 뒤흔든다. 퍼거슨은 월드뱅크의 보고서들에 나타난 개발 담론들을 분석하고, 1970년대 레소토 고원지대인 타바-체카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왜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퍼거슨에 의하면 개발 담론들은 식민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사회를 고립되고 저개발되었으며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왜곡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월드뱅크의 보고서는 레소토를 시장에서 동떨어져서 자급자족하는 농업 위주의 국가로 묘사하지만, 실제 레소토는 한때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남아공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국민 대다수는 농부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이며, 일찍이 시장 경제에 노출되어 있던 국가였다. 저개발국가로 오인되어 개발원조를 받게 된 레소토의 타

바-체카 지역에는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CIDA 가 주체가 되어 축산업과 농업 생산성 향상, 시장 도입 등의 개발 계획들이 실행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퍼거슨은 이 개발 계획이 본래의 의도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적 국가기구의 팽창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자원, 실업, 임금 등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오인되어, 그와 같은 사회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퍼거슨은 아프리카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 행해진 개발 계획들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이들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러한 현상을 ‘etatization’이라고 명명한다. 국제 개발 원조 이후에 나타나는 etatization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관료적 억압은 커지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 면에서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다.

식민 제국의 침탈이 자원을 강탈하고 환금작물 재배만을 강제하여 아프리카의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립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면, 독립 이후 개발 담론을 앞세운 세계 자본의 침략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를 자본의 브로커로 전락시키고 모든 종류의 담론이 정치에서 눈 돌리게 하여 건강한 자치의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종의 ‘반정치 기계 anti-politics machine’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퍼거슨의 논지이다. 퍼거슨의 논의는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전 세계 ‘후진국’의 개발독재 정권들과 국제 자본 및 ‘원조’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5. POSTCOLONIAL GOVERNMENTALITY

Achille Mbembe, *On the Postcolon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지금까지의 논의 주제들 –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 담론 속에서 절대적 타자로서의 아프리카의 ‘발명’과 고착, 보편적 인권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수성 사이의 대립, ‘미신’과 ‘비합리’를 넘어서 ‘반이성’ 혹은 ‘설명 불가능’으로 치닫는 듯한 현실, 다시금 아프리카 사회를 뒤흔드는 전 지구적 자본의 개발 체제와 그로 인한 국가의 비대와 약화 – 을 더욱 근본적으로 천착하여, 음벰베는 아프리카의 후기식민지적 권력 관계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우선 아프리카의 식민 통치가 기본적으로 폭력에 기반했었음을, 즉 식민 모국에서 부여받은 결정권을 휘두르는 개인의 변덕에 의해 권력이 부여되고 법이 만들어지며 처형이 행해지는, 사적이고 원칙 없는 통치였음을 상기시킨다.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하건, 식민 통치는 식민지의 어떤 이익이나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저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목적인 지배였다. 이러한 식민 지배의 (비)합리성은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며, 식민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배하에 있던 아프리카인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이것이 독립 후 아프리카의 정권들 및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식민주의의 유산은, 독립 이후의 경제 상황 악화, 잦은 내전, 실업 등으로 더욱 왜곡되고 심화되어, 아프리카에서 개인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라, 사유화된 정부로부터 월급 혹은 연금을 지급받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하는 종속된 존재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음벰베는 이 독특한 통치 방식을 ‘commandment’라고 명명한다.

commandment로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원칙 없는 폭력이 통치의 기본이 되며, 세금은 약탈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국제 개발 담론이 개입하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안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퍼거

슨이 지적한 대로 그나마 남아 있던, 정책 수립과 실행의 주체로서의 국가는 약화되고 시장은 파편화되었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생산적인 국가라는 기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경제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실행된 구조조정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공적 자본을 사사로운 세력들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주권의 사유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창출하게 되었다. 공적 자본을 손에 쥔 세력들은 스스로 무장하였고, 파산에 이른 정부는 이들에게 면세와 면책권을 팔았으며,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인민들은 이 주권 세력들과 이들이 독점하는 지하경제 네트워크에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존엄이나 인권은 저당 잡힌 채 정체성의 과도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국가라고 하긴 어려운 이 난무한 ‘주권 세력’들이, ‘civility’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폭력’을 ‘공공선’으로 정당화하여, 인민과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음벰베는 주장한다.

음벰베의 논의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프리카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미화, 혹은 변명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노력이 잘 드러난다. 위에서 요약한 아프리카의 후기 식민지적 정치·경제 상황들에 대한 묘사 외에, 음벰베는 commandment로 유지되는 지배 관계들이 의미를 창출, 공유하고 실천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너무도 참혹해서 금방 눈을 돌리거나, 기존의 설명 방식에 기대어 성급히 판단하고 쉽게 절망하던 학계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아프리카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 논의된 주제들이 기존의 아프리카 연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외에도 환경과 천연자원의 동원,

에이즈와 국제 원조,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새로이 나타나는 양육 및 상조 체계, 이주노동자 문제, 난민캠프 문제 등등에 관한 문헌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혹자는 ‘문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혹자는 자의적으로 희망 섞인 관측을 한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 이런 문제의 씨앗을 뿌린 외부 세력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어떤 이는 그 또한 아프리카인들의 자발성과 의지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 모든 문헌과 연구들에 내포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고,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아프리카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를 돌아보고 규명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